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

모심과살림연구소

2018 연구기획위원회 결과보고서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로서
협동주체되기**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로서 협동주체되기

양세진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 Ph.D)¹⁵⁾

1. 들어가는 말: 문제의식

생태적 전환시대, 생명살림·농업살림·밥상살림의 생명가치를 지향하는 생명을 살리는 협동 운동으로서 한살림운동의 주체는 어떤 주체인가? 협력적 공유시대, 협력적 감성으로서 '생태적 공존(eco-symbiosis¹⁶⁾)'을 추구하는 한살림운동의 주체되기는 어떤 주체되기인가?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¹⁷⁾를 지향하는 한살림운동은 지역살림의 관점에서 사회적 역할의 확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에서 본 고는 지난 30년 동안 한살림운동을 주도해왔던 생산자·조합원·실무자 등 다양한 한살림운동 주체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살림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살림운동을 함께 해온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방식과 존재방식에 대한 현상학적¹⁸⁾ 탐구

15)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 철학(현상학)과 행정학(협력적 거버넌스)을 공부했으며, 소통적 강의와 공동학습을 통해 실천가와 활동가들의 삶의 힘을 회복하고 강화하는데 협력적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16) '살다'라는 의미는 '비오스.bios'는 그 개념 안에 이미 벌써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bios로서의 삶이란 이미 세계-내-존재로 존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동-내-존재'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함께.공동.협동'이라는 의미는 'sym'이 '타자와 더불어 관계맺고 있음'이라는 의미의 'bios'와 결합되면서, 공존의 삶, 협력적 삶, 협동의 삶이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규범적인 진술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현실속에 드러나 있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 우애는 직접적인 관계맺음이며, 환대는 간접적인 관계맺음이다. 우애는 타자로서의 자기, 자기로서의 타자성, 친밀함의 타자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환대는 전적인 타자성, 낯섬의 타자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살림운동이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은 한살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산자·조합원·실무자 들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모든 생명주체들과의 열린 환대를 지향하겠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 아울러 우애는 직접적이고 친밀함의 관계맺음이지만, 이것은 또한 사회적 우애와 연결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들과의 우애는 사회적 우애로 확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우애는 사회정의의 최상의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 사회적 우애가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는 굳이 법과 규정을 따지는 정의의 규칙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정의가 잘 작동한다고 해서,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는 신뢰의 사회적 우애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한살림이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결하고 위대하며, 위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2007).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외 옮김. 길: 277~280쪽(1155a5~1155b15).

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현실속에 드러나 있는 현상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다. 물론, 여기에 정리되는 이야기는 필자의 이해와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논박, 비판을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에 열려있는 글쓰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좀 더 편안하게 자기글쓰기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한살림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강렬함과 섬세한 감수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해주었다. 경제조직으로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적 기업 방식과는 근본적인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 사회에 강렬함을 주었다. 어쩌면 '한살림 방식(the way of hansalim)'의 사업모델은 그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저항이고 봉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작은 좁쌀 한알에서 우주를 보고, 작고 미약한 생명에 대한 경외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섬세한 감수성에 기반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자주점검을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한 관점으로 생명을 살리는 농업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하고 있으며, 온전한 생명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참여와 관계망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강렬한 저항과 함께 생명의 먹거리를 위한 생명살림, 농업살림, 밥상살림의 섬세한 감수성이 공존하는 것이 한살림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렬함과 섬세한 감수성을 동시에 추구해온 한살림운동의 활동 주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사회에는 한살림운동을 실천해온 활동 주체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건넬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주체(subject)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선택, 자기 결정, 자기 주도성의 행위주체이며, 사유주체로 이해되어 왔다. 또한 주체되기는 삶의 주인되기이면서 동시에 홀로주체, 유아론적 주체, 개인적 주체 더 나아가서 자기 효용과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 주체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되기는 한살림운동이 그 시초부터 극복하고자 했던 주체의 존재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주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한살림운동의 실천을 주도해온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지점이 있다. 그럼에도 본 고에서는 이러한 주체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주체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이해가 어떻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기에 지금 우리가 주체의 역사를 새롭게 변형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자기이익과 자기효용을 추구하며 세계를 객체로 대상화해서 장악하고 포섭해야만 주체일 수 있다고 생각해온 유아론적 주체개념의 역사를 현재의 역사로 실천적으로 적용하면서, '협동주체' 혹은 '공동주체'로 주체개념의 의미를 변형하고자 한다.

한살림운동이 어떤 비전과 가치를 지향하든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어떤 행위자가 혹은 어떤 존재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 행위자를 '주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체되기의 토대 위에서 한살림운동의 실천적 의미를 이야기할

18) 한살림운동을 함께 해온 주체들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캐물음을 갖기는 하지만,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서술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가 현실속에 이미 드러나 있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본질과 현상은 상호공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은 언제나 현상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며, 현상은 언제나 본질과의 관계를 통해 현실속에 존재할 수 있다.

수 있다면, 협동운동으로서 한살림운동의 주체되기는 어떤 주체되기인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자기효용과 자기욕망,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되기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협동운동으로서 한살림운동의 주체되기에 대한 우리의 실천 지향적 물음은 복수성과 복수적 존재를 토대로 하는 국민주권을 일상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된 우리 시대의 정신과 공명하면서 우리에게 강렬함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로 이어지는 긴 겨울의 시간을 통해 '이게 나라냐!'며 광장에서 울분을 토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광장의 메아리로 머무르지 않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2016년 가을이후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 각자가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에 대한 자기인식과 자기확신의 힘이 견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시민주권의 시대에 우리가 주체되기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2016년 가을이후, 전 사회적으로 주권적 주체되기와 존엄한¹⁹⁾ 주체되기에 대한 공명이 강렬하게 경험되었다. 자기 발언적 주체되기로서 주권적 주체되기란 과거 자본주의 경제속에서 효용적 주체되기와 소유적 주체되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이고 존재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는 주체되기에 대해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주권적 주체임과 존엄한 주체임에 대한 자기인식으로 인해 더 이상 외부의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힘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비지배 자유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익숙해져온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왜곡된 의식인지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된 나머지 주권적 힘을 가진 주체임에 대한 자기인식을 여전히 자기효용과 자기소유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과거보다 더 강력한 자기이익에 매몰된 자기 목소리를 가진 개별적 주체의 탄생을 불러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주권적 주체라는 존재의미를 백화점 VIP 고객이 할 수 있는 갑질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왜곡은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 행정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사회서비스 기관 등에서도 일상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현실이다. 고립된 주체되기, 유아론적 주체되기로서 주체화의 의미의 연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자기이익과 자기효용 중심의 주체들의 등장으로 사회는 더욱 더 소통과 조화가 힘든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체되기가 불러온 왜곡된 현상은 한살림의 각 지역 생협의 매장에서, 그리고 조합원활동에서도 부분적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하다.

협동운동으로서 한살림운동은 30주년을 계기로 조합원 주인되기, 조합원 주체되기를 넘어서 '조합원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합원 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말을 건네고

19)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언표하고 있는데, '존엄(尊嚴.Dignity)'의 사전적 의미는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이다. 이러한 헌법적 토대위에서 우리는 한살림운동의 모든 활동주체들은 '존엄한 주권적 주체로 존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자 하는 실천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협동하는 삶의 본래성과 고유한 존재방식을 강렬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주권자로 존재하는 것 자체는 각 주체들의 존재방식이지만, 주권적 힘을 행사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적이어야 하며, 복수로서만 개별 주권자는 주권적 힘의 주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권자 개인이 일상 속에서 자신이 가진 지위나 직책, 권한 혹은 어떤 힘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많은 경우 추악한 갑질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존재론적으로는 주권자인 개인들이 행위로서 주권적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중적 복수성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별 주권자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협동적으로 복수를 이루고, 다중과 공명할 때만 주권자의 주권적 힘은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권자 개인은 이미 벌써 복수적 개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해바다의 물을 담은 한컵의 물과, 수돗물을 담은 한컵의 물은 본질적으로 다른 물이다. 수돗물을 담은 컵을 아무리 백만개를 모은다 한들, 바닷물을 만들 수는 없다. 작은 한 컵의 물이 바닷물인 한에서 백만개의 컵의 물이 동해바다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개인은 힘이 약하나, 연대와 협동을 통해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다는 경구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각 개인은 이미 벌써 복수적 존재로서 바닷물이다. 각 개인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들의 연대와 협동이 강력한 힘으로서 바다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살림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²⁰⁾은 한살림활동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본래 자기이익을 위해 홀로 생존할 수 있는 사적존재가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서만 자기일 수 있는 복수적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며, 또한 생존을 위해 생존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생존을 위한 자기전략이 곧 공존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곤 한다.

복수성으로서 국민주권²¹⁾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주권자의 복수성, 그러한 복수적 존재로서 주권자들의 복수적 공명에 의해서 주권적 힘이 현실로 작동되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살림운동이 이야기하는 ‘조합원주권’이란, 조합원 개개인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개체로서 존엄한 주권적 주체로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각자는 한살림운동을 주도하는 주권적 힘을 가진 복수적 존재로서 주권적 주체이며, 조합원들의 복수성, 조합원들이 다중에게 공명을 할 수 있는 한에서 조합원들의 목소리와 실천이 한살림운동을 주도하는 주권적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각 자는 한살림운동의 주권자임이 맞지만, 주권

20) 생산자이든, 조합원이든, 실무자이든 간에 모든 한살림운동의 주체들은 활동하는 행위주체로 이해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Sovereignty)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적 주체란 (1)권력의 기원자(origin power)이며, (2)최고 권력(supreme power)의 주체이다. “국민주권은 복수(multitude.다중)이다.” 복수적 존재인 주권자는 다중의 복수와 공명하는 한에서 주권적 힘의 주체일 수 있다. 협동주체는 ‘주권적 삶의 주체’이다. 주권(sovereignty)은 복수적인 힘이다. ‘supreme power’이자 ‘origin power’로서 주권은 복수적으로만 그 힘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주권자로서 주체의 존재방식은 단수적일 수 있지만, 주권이 드러나는 행위방식, 행동방식, 작동방식은 복수적으로서만 가능하다. 주권은 언제나 다중주권이고, 국민주권이고 복수적인 힘인 것이다.

자인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곧 바로 한살림운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권적 힘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살림운동이 말하고자 하는 ‘조합원 주권’이란 복수적 존재로서 조합원들의 다중적인 협력과 협동을 통해 복수의 조합원과 공명하는 목소리를 낼 때, 한살림운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권적 힘의 주체되기가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살림운동이 이야기하는 ‘조합원 주권’은 복수로서의 국민주권과 공명하고 있으며, 복수적 존재로서 조합원의 존재론적이고 실천적 의미를 우리는 ‘협동주체되기’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복수성으로서 자신의 존재방식을 인식하고, 협동주체되기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일상적인 한살림 활동의 경험을 통한 자기인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살림운동을 위해서는 ‘협동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규범이나 당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협동주체되기’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한살림운동의 주체들은 주체로서 자기란 곧 관계의 총체임을 인식하고 있다. 푸코는 자기란 ‘본질과의 관계, 임무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등의 복합망으로서 ‘자기란 관계의 총체’라고 말하고 있는데²²⁾, 이러한 설명은 한살림운동의 활동주체인 협동주체되기의 존재론적이고 실존적 의미를 보증해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푸코는 ‘한 사람이 자신이 관계의 총체로서 협동주체임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진리²³⁾를 말하는 행위의 형식을 통해 타자에 의해 자신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주체의 행위 형식이 또한 진리를 말하는 다른 타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관계맺는 것을 통해서 상호책임짐을 통해 확인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협동주체의 형식이란 자기 자신의 특이성을 구성하면서도 진리를 말하는 협동주체로서 타자에 의해 상호책임짐의 관계로 구성되는 주체인 것이다²⁴⁾.

2. 협동주체되기로서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의 실천적 의미

이러한 분석속에서 한살림운동이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주체되기는 협동주체되기였다고 할 수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밥상과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모토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이 중요하다는 규범적 의미를 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주체로서 상호공속적이고 상호책임짐의 관계를 맺고

22) 미셸 푸코.(2007). 「자기수양」, 『비판이란 무엇인가/자기수양』, 심세광옮김. 동녘: 94~123쪽.

23) 푸코의 파레시아(parrhesia.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힘)의 ‘진리(truth)’는 하이데거가 이해한 ‘알레테이아(aletheia.탈은폐)’로서 진리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주체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주체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게끔 한다는 접근이다. 진리가 주체안에 전면적으로 자기화될 때에야 비로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드러날 수 있으며, 이것은 고립된 주체의 자기인식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로부터 인정받는 상호공속적인 관계망속에서 진리가 작동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주체가 진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와 더불어 함께 하는 관계를 통해서, 협동주체되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24) 미셸 푸코.(2017). 「파레시아」, 『담론과 진실』, 심세광옮김. 동녘: 24~79쪽.

있음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즉, 생산자는 소비자와 더불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자기 주체로 존재할 수 없으며, 소비자 역시 생산자와 더불어 함께 하지 않고서는 자기 주체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면적으로 보면, 한살림운동이 이야기하는 협동주체되기가 생산자 주체와 소비자 주체의 협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서로 분리된 두 주체들 사이에 자기 효용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적·도구적·전략적 협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살림운동이 독심을 갖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구해온 생명의 유기적 연대와 생태적 공존으로서 협동주체되기의 온전한 의미를 왜곡하거나 혹은 궁핍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주체되기는 ‘복수적 존재로서 주체인 자신은 이웃과 더불어서만 본래적이고 특이성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공동의 몫인 동시에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방식이며, 행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주체되기의 의미는 에드가 파넬(Edgar Parnell)이 『협동조합-그 아름다운 구상』에서 말한 ‘스스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더불어 존재하는 존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 그리고 상호 돕기의 주체로 존재하기란 무엇인가? 슬프게도 사람들은 종종 그들 스스로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다는 맹신에 빠져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은 자신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측면들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조직들에게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 오직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동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돕고 협동하기 위해서는 상설적인 연대체와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연대와 협동이라는 이름아래 소중한 자유를 포기한다면 상대의 힘에 의존적이 되고, 예속된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노예 상태에 그리 멀지 않은 삶이다.’²⁶⁾

한살림운동이 독심을 갖고 강단²⁷⁾있게 이야기해온 협동주체되기로써 존엄한 생명주권 주체되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거래적·도구적·전략적인 형식의 사적인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에 의한 협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협동의 본질이란 ‘복수적 주체 스스로가 타자와 더불어서만 주체의 본래성과 고유성, 특이성 (singularity)이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타자와 더불어서만 자기 일 수 있는 자기되기인 것이다. 협력적 감성²⁸⁾을 전면적으로 자기화한 주체들간의

25) 박재일.(2013).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1』, 모심과살림연구소: 149~165쪽.

26) E.Parnell(2012). 『협동조합-그 아름다운 구상』, 염찬희옮김, 그물코: 35~36쪽

27) 강단이란, (1)어떤 일을 무너지지 않고 지속하는 힘이며, (2)굳세고 깨끗하게 견디어 내는 힘이고, (3) 어떤 일을 야무지게 결정하고 처리하는 힘이다.

28) 협력적 감성은 개개인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개인의 행복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살아가는

협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이란 타자로서 자기되기이며, 자기로서 타자인 자기들의 협동이다. 자기효용과 자기이익, 자기욕망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연대와 협력은 한살림운동을 실제적으로 주도해온 존엄한 생명주권주체인 협동주체되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속에서 우리는 한걸음 더 캐물어 들어가고자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한쪽을 배제하고서는 다른 한쪽의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호공속적 관계와 상호책임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는 자기 자신을 협동주체로 이해하면서 타자와 더불어서만 본래적이고 고유하며 특이성의 자기일 수 있는 주체되기로서 복수적 주체인 협동주체간의 협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한살림 활동의 고백은 이러한 가치를 일상의 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살림운동의 실천주체인 협동주체란 곧 ‘복수적 주체인 동시에 다른 주체와 더불어 함께 협동함을 통해서만 본래적이고 특이성의 자기일 수 있는 주체되기’²⁹⁾인 것이다.

그런데 협동주체되기는 곧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이다. 이것이 한살림운동을 주도해온 활동주체로서 협동주체되기의 실천적 의미이다. 그럼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는 어떤 주체되기를 의미하는가? 그것은 ‘밥’과 관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한살림운동이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것은 ‘밥’이다. 밥이 생명이고, 밥이 우주이고, 밥이 삶의 힘인 것이다. 또한 밥은 사랑이고, 밥은 우정이고, 밥은 환대이다. 그리고 밥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삶의 향유이자 삶의 향유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다. 아울러 밥은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예측시키며 억압하는 권력에 저항하는 전복적 힘을 생성시키며, 밥은 세상을 변혁하고 혁명을 주도하게 하는 봉기적인 힘이다. 이 모든 것들은 또한 밥의 영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밥은 자연의 선물이고, 농부의 손길이며, 한살림운동속에서 생태적 공존과 협동에 의해 존재의미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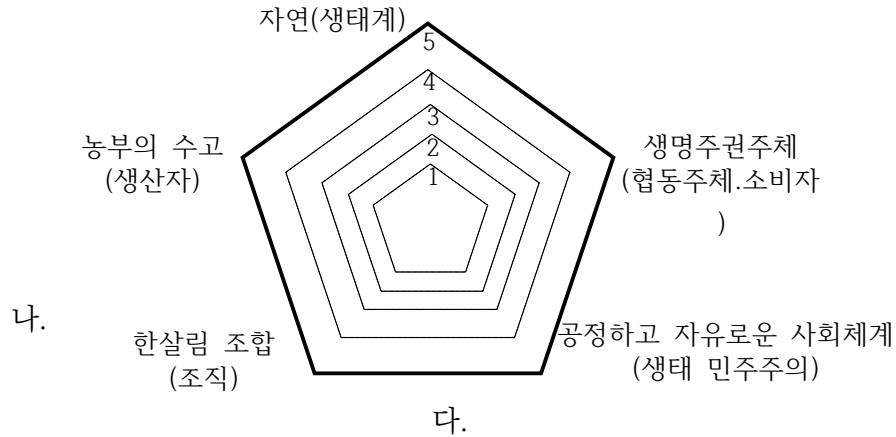
밥은 ①자연(땅과 물과 바람과 태양 그리고 벌레들, 생태계), ②생산자인 농부의 땀 흘림의 수고, ③소비자인 생명주권주체의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그러한 것을 연결해주는 ④플랫폼이자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한살림, ⑤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체제(생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5가지 요소들이 균형&충만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우리는 밥을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한살림운동은 30년 동안 밥의 영성을 똑심있고 강단있게 실천해 왔다. 물론, 사회적으로 선하고 정의롭고 성평등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실천적 응답엔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것은 한살림운동이 사회제도의 변혁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기 보다는 마치 ‘등대’³⁰⁾와 같이 능동적 수동성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더 큰 집단의 행복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힘이다.

29) 본 고에서 일관되게 한살림운동의 실천주체를 ‘협동주체’로 명사로 표현하지 않고, 동사인 ‘협동주체되기’로 표현하는 것은 주체되기는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며, 주체되기관 곧 과정속의 주체되기임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30)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섬에 세워진 파로스 등대는 높이가 100m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등대는 고정되어 있어 수동적이지만, 어둠에 빛을 주는 능동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 수동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밥의 영성을 이루는 5가지 요소



3. 협동주체되기로서 복수적 주체되기의 철학적 의미

여기서 우리가 한걸음 더 캐물어야 할 것은 협동주체되기로서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는 복수적 주체되기로서만 그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수적으로만 자신의 존재방식과 행위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는 곧 복수적 주체되기로서 협동주체되기과 공명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협동주체되기는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지만, 모든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어진다.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는 모든 살아 있는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전면적으로 자기화하면서 존재하듯이, 협동주체되기 역시 모든 사회적 관계를 자신과 무관하게 여기지 않으며, 세계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임을 받아들이며, 자기란 곧 생태적 자기로서 생태적·사회적 관계의 총체임을 의미한다.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란 '생태적·사회적 관계의 총체속에서 생명존재 및 인간적 타자와 함께 더불어서만 본래적이고 고유하며 특이성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기임을 인식하는 주체되기'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피타고라스(Pythagoras, B.C 582~497)는 생명주권주체되기로서 협동주체되기의 실천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피타고라스는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것이며, 공동의 몫인 자기 몫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우정의 공동체이며, 우정의 공동체는 모두가 평등한 관계'라고 말했다³¹⁾. 피타고라스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더 이상 나뉘어질 수 없는 고립된 개별 인간(individual)이 아니라, 공동주체이며, 협동주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공동체는 모든 것을 명백하게 서로 서로와 공유해야 하며, 타자와 더불어서만 자기 일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의 관계망이 바로 협동주체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피타고라스의 공동주체, 협동주체에 대한 이해는 생태적 공존의 맥락에서 자연과 우주 그리고 신들과의 연결을 포괄하고 있다. 협동주체는 자연과 신들과의 관계망까지를 포괄하는 의미를 지향하고 있다. 피타고라스

31)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2008). [피타고라스],『그리스철학자열전』, 전양범 옮김. 동서문화사: 529쪽. '피타고라스는 친구들의 것은 모두의 것(공통.공동.공유)이고 우정이란 평등한 관계라고 말했다.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을 하나로 모아놓고 공유된 공동.공통의 몫으로 사용하였다.'

의 이러한 협동주체되기는 플라톤에게 이르러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이유로 여겨졌다. 여기서 우리는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몫인 자기 몫(koinonia ta ton philion.코이노니아 타 톤 필리온: The property of friends is shared common property)’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더 캐물어보고자 한다.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몫인 자기 몫’이라는 말은 ‘친구’, ‘것(소유)’, ‘공동의 몫’, ‘자기 몫’으로 나누어서 몇가지 일련의 물음을 던짐으로 그 본래적인 의미를 사유할 수 있다. 누가 서로의 ‘친구’인가? 누가 우리의 ‘친구’인가? ‘친구’들이 생각하는 ‘친구’가 바로 우리 자신인가?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타자로부터 증여된 것을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공동의 몫’은 각기 개인들의 몫의 합을 말하는 것인가? ‘공동의 몫’은 일반의지나 이데아처럼 공동의 가치 혹은 목표를 말하는 것인가? ‘자기 몫’은 자기 자신의 소유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자기 몫’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에게 진실인 자기 자신의 것인가?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몫인 자기 몫’에 대해 우리가 명석·판명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의미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통해 협동주체되기의 실천적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타고라스가 이해한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몫인 자기 몫’이라는 경구는 플라톤³²⁾에게 전수되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에게 공유되었던 이러한 내용은 2500년 후에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소유를 넘어 접속³³⁾과 공유의 시대³⁴⁾를 이미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피타고라스의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몫인 자기 몫’이라는 문장을 소개하면서, 공동체에 참여하는 ‘우리는 차이를 가진 하나’³⁵⁾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체는 한마음(homonoia)을 가진 관계’이며, 이 말의 의미는 신과 닮은 존재로서 인간들 상호간에 닮음이 존재하는 관계를 말한다³⁶⁾. 그리고 그 각각의 인간은 본질과 관계맺음 속에 있어야 하며, 본질과 관계맺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들은 서로에 대해 ‘우리는 차이를 가진 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차이를 가진 하나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형식적인 동질성을 넘어 본질을 본질적으로 사유하면서 관계맺는 사람들의 관계망이며, 그러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koinonia:본질.공유.참여.협동)’의 본래적인 의미이다³⁷⁾.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이 이야기한 ‘친구의 것은 공동의 몫인 자기 몫’에 대해 자기만의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³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혹은 우애)을 정의

32) 플라톤.(2003). 『국가.정체』, 박종현옮김, 서광사: 4권 424a(265쪽)

33) 제레미 리프킨(2009).『소유의 종말: 접속의 시대』, 이희재옮김, 민음사

34) 제레미 리프킨(2014).『한계비용 제로 사회: 협력적 공유경제의 부상』, 안진환옮김, 민음사

35)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부분들의 복합물이고, 우리는 차이이다.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것은 숫자 ‘1’이 아닌 전체로서 하나임(whole, holistic)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살림이란 차이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차이를 가진 하나이며’,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몫인 자기 몫’이라는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공동존재 혹은 협동존재로서 인간의 본래성에 대한 철학적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6) ‘homo imago Dei.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였다. 인간은 무한한 신(존재자체)을 닮은 유한 존재자이다.

37) 플라톤.(2009). 『법률』, 박종현옮김, 서광사: 5권 739c(378쪽)

38) 아리스토텔레스.(2014).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외옮김. 길: 8권 1159b25~30(297쪽)

로움 보다 우선하는 삶의 가치로 인식하였으며, 우정은 같은 삶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코이노니아(koinonia)는 우정의 관계이며, 또한 정의로움이 작동하는 관계이다. 우정이 정의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정의는 우정의 깊이에 따라 존재한다.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것이라는 말은 우정이란 ‘코이노니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³⁹⁾

공동체의 부담과 짐을 공동의 몫인 자기 몫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관계망, 평등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생태적 공존의 관계망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이다. 우정이 깊을수록 모든 것이 공동의 소유된 바이지만,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제한된 것들만이 공동의 소유로 공유될 뿐이다. 우정의 정도에 따라 더 많은 것들이 공유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적은 것들이 공유된다. 따라서 우정의 수준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되는 양과 질에서도 차이가 생긴다⁴⁰⁾. 우정의 관계를 협동주체되기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협동주체되기는 공동의 소유를 공유하는 것과 평등하고 정의롭고 생태적 공존의 관계가 작동하는 공동체 형성과 공명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협동주체되기를 전체주의적으로 오해할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다. 협동주체는 협동하는 개별 주체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이면서 동시에 각 주체의 고유성과 특이성의 차이가 손상당하지 않는 한에서 협동주체되기가 의미있는 주체의 특성이다. 블랑쇼는 이것을 ‘바깥’이라고 보았다. 블랑쇼는 ‘바깥이란 항상 거기에 있고 가깝지도 멀지도 않으며, 친숙하지도 낯설지도 않고, 중심이 없으며 모든 것을 흡수하지만,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는 현존하는 힘이다. 바깥의 영원한 넘쳐흐름의 힘’⁴¹⁾이라고 보았다. 레비나스는 블랑쇼의 ‘바깥’을 주체되기의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깥의 주체되기가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블랑쇼가 말하는 ‘바깥의 영원한 넘쳐흐름’에 따라 타자를 외면하거나 적대적이지 않으면서, 타자를 위한 존재방식으로 현현하는 주체되기

39) 폴리스 공동체, 시민 공동체로서 폴리테이아(politeia)는 정치체제로 이해되고 있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그리스어로서 폴리테이아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공속성과 개인의 복수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로 이야기하는 개념이다. ‘폴리테이아.politeia’는 도시공동체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 시민을 뜻하는 ‘폴리테스.polites’ 그리고 정치를 의미하는 ‘폴리틱.politik’와 상호적으로 연결된 그룹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폴리스가 시민들의 공동체이듯이, 폴리테이아가 시민에 의거한 것은 확실하다. 시민으로서 폴리테스는 결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구성원을 항상 의미하고 있다. 타자와 더불어서, 타자 속에서만 자기 일 수 있는 그런 주체를 일컫는 것이다. ‘테스.tes’라는 표현은 범주를 설정하는 그리스어 접미사이다. 즉 폴리테스란 ‘폴리스에 속해 있는 시민’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시민 자신은 폴리스에 의거한다. 시민(폴리테스)은 폴리스 전체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이 전체 없이 시민은 자신을 인식할 수도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공동-내-존재.복수로서 단수인 주체). 시민의 폴리테이아는 폴리스라는 공동체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폴리테이아는 폴리스와 시민이 상호공속적으로 관계 맺고 있다는 자각의 결과로 형성된 개념이다. 즉 폴리테이아라는 개념은 폴리스의 권리를 부여 받은 시민이 새로운 동료시민과 함께 살면서 삶을 전체적으로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그 전체의 의미를 갖는다. 자클린 보르드(Jacqueline bordes, 2000). 『폴리테이아: 고대 그리스 시민권론과 정치체제론』, 나정원 옮김. 아르케: 13~87쪽.

40)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외 옮김, 길: 9권 1689b5~10(334쪽) ‘우정이란 서로 다른 두 육체 가운데 갖든 하나의 영혼이다. 우정이란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이다. 친구들의 것은 공동의 것이다. 공동의 몫인 자기 몫을 소유하는 관계가 우정이다.’

41) 모리스 블랑쇼.(2011). 『도래할 책』, 심세광 옮김, 그린비: 466쪽

가 우리의 실천적 과제이다. 바깥의 영원한 넘쳐흐름이란 ‘주체가 타자의 시선에 포착되지만 주체 자신의 타자성(고유성과 특이성.singularity)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타자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타자의 시선에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자에게 관리당하지 않고 장악당하지 않고 포섭당하고 통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주체되기는 논리적인 사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천적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⁴²⁾

우리는 바깥의 의미, 바깥의 주체되기의 의미를 매개로 협동주체되기란 바깥의 주체되기이며, 바깥의 주체로서 협동주체되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살림운동이 지향하는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가 곧 협동주체되기임을 이해할 때, 협동주체는 주체들 상호간의 우정과 정의, 평등, 생태적 공존이 상호작용하며, 각 주체의 고유성과 특이성이 어떠한 경우에도 손상당하지 않고 협동하는 전체와 공명을 지향하는 바깥의 주체되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동주체되기는 공정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법과 제도의 환경 위에서 더욱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4. 주체(subject)의 의미에 대한 계보학

그런데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로써 협동주체되기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는 아직 충분히 해명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주체(subject)’라는 두 글자, 개념의 의미이다. 주체로 번역되는 ‘subject’는 중세에 ‘아래로 보낸다’, ‘아래에서 떠 받들다’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중세에는 신의 통치 대리인으로 군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존재방식이었다. 주체란 군주를 떠 받드는 인간의 존재방식을 의미했으며, 그렇기에 중세 문헌에서 나타나는 ‘subject’는 ‘주체’가 아니라 ‘신민(臣民)’으로 번역해야 한다. 복종하는 자, 예속된 자로서 신민은 ‘자신이 행하는 복종을 자유로이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종속적인 존재’이다. 복종할 자유. 예속될 자유로서 자유를 가진자가 신민으로서 중세의 주체였던 것이다. 복종하는 것을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으로 받아들였던 신민으로서 주체는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데카르트 등 근대 철학의 사상가들에 의해 세계를 근거지우고, 세계를 해명하고, 세계를 규정짓는 본질적인 존재이며, 실체로서 재해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의 의미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군주에게 복종하는 신민인 주체에서 세계를 근거지우고 세계를 규정짓는 본질로서 실체인 주체로 재해석될 수 있는 근거는 ‘subject’의 그리스어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용어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ubstance(실체)’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휘포케이메논(hypokeimenon, ‘아래에 놓여 있다’, ‘아래에서 떠 받들다’의 의미)에서 ‘주체(subject)’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휘포케이메논’은 본래 ‘지탱하는 힘. 가능하게 하는 힘. 근거를 제공하는 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휘포케이메논’으로서 주체인 인간은 따라서 더 이상 세계와 자연과 인간과 공존하고 협동하고 생태적 공존을

42) 임마누엘 레비나스.(2003) 『모리스 블랑쇼에 대하여』, 박규현옮김. 동문선: 16~17쪽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였다.

근대까지 주체개념은 실체로서의 주체로만 이해되어 왔다. 세계의 중심.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힘, 세계를 규정짓고, 정의내리고, 대상화하고, 포획하고, 장악하고, 지배하고, 압도하는 힘으로서 주체의 의미를 이해해왔다. 물론, 이러한 근대적 주체개념이 가져온 폐해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⁴³⁾,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한살림운동이 추구해온 것으로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로서 협동주체되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적 주체개념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레비나스와 데리다를 통해 근본적으로 재해석되었다. 주체개념을 전복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의미,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체라는 개념안에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그러나 숨겨진 의미를 끄집어 낸 것이다. 어쩌면 주체라는 개념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sub’는 ‘아래’이고, ‘ject’는 ‘내보내다’, ‘떠받들다’, ‘맞아들임’이라는 의미이기에 이것을 연결해서 레비나스는 주체되기란 ‘타인을 맞아들이는 가운데, 내 자유가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타인을 맞아들임을 통한 자유의 예측은 분명히 주체의 예측을 의미하며, 질서지어진 자유를 주는 복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체의 탄생을 의미한다. 주체성을 환대로 재정의하는 레비나스에게 타자를 맞아들이는 주체의 예측은 자기 주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타자에게 예측되는 주체되기란 곧 주체가 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타인에 대한 책임은 주체의 본래성이다. 나는 타자의 볼모이다.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 이것이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주체의 존재방식이다. 데리다는 레비나스의 타자의 아래에서 떠받들음으로서 주체되기란 가능하다는 의미를 타자를 환대할 수 있는 힘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데리다는 타인을 맞아들임이라는 말은 ‘능동성’과 ‘수동성’의 동시성을 표현해준다고 보았다. 타자를 맞아들임을 레비나스는 ‘환대(hospitality)’라는 의미로 재창조하였다고 해석한 것이다. 환대는 맞아들이는 주인(xenia.host)이 맞아들여지는 손님(xenia.guest)과 관계하는 힘의 관계이다. 손님에 대한 주인의 힘이고, 주인에 대한 손님의 힘이다. 환대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본래 ‘제니아’라는 개념에는 ‘손님의 주인’이고, ‘주인의 손님’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 환대를 한다는 것은 어느 한 쪽을 전적으로 손님으로만 위치지워서도 안되고, 다른 한 쪽을 전적으로 주인으로만 위치지워서도 안된다. 아울러 타자를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는 주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타자의 현현에 대한 응답이며, 타자의 얼굴은 나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아르케(arche.시원.시초)’이다. 나의 행위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자기인식하고, 자기배려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타자이다. 레비나스에게 자기선택, 자기결정, 자기주도성은 ‘타자를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인 한에서 자기선택이고 자기결정이고 자기주도성일 수 있다⁴⁴⁾. 따라서 자기선택과 자기결정은 ‘수동적 결정’, ‘무의식

43)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1세대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그리고 미셸 푸코는 세계를 근거지우고 세계를 규정하는 근대적 주체개념을 비판하였으며, ‘도구적 이성’, ‘주체는 없다’와 같은 경구를 제시하였다. 막스 호르크하이머(2006).『도구적 이성비판』, 박구용 옮김, 문예출판사 / 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2001).『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옮김, 문학과지성사 / 미셸 푸코(2012).『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민음사 / 미셸 푸코(1992).『지식의 고고학』, 이정우 옮김, 민음사.

44)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살림의 주체들이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상호호혜적이고 상호신

적 결정', '타자의 이름으로 증여된 결정'인 것이다. 타자의 존재로 인한 환대가 가능하다면, 주체가 환대를 할 수 있도록 타자가 환대의 가능성을 증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증여를 했다면, 그것은 그 타자가 바로 나로 하여금 증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증여 행위를 증여해준 것이다⁴⁵⁾. 이것이 타자를 환대할 수 있는 존재론적 근거이다. '주체되기'란 곧 '타자를 아래에서 떠 받들며 환대하는 주체되기의 존재방식'이다.⁴⁶⁾

이러한 맥락에서 한살림운동의 실천적 핵심가치인 '모심'과 '살림'은 우리가 캐묻고 있는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로서 협동주체되기의 실천적 의미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체성의 특성이란 바로 '모심'과 '살림'의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생명과 자연, 우주와 세계, 사회적으로 연결된 모든 타자들을 모심을 통해서만 살림이 가능하며, 살림의 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곧 아래로에서 떠받들(subject)인 모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모심이 없는 살림은 도구적·거래적·전략적 일 수 있으며, 살림이 없는 모심은 공허하고, 맹목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다. 모심과 살림은 상호공속적인 관계속에서 상호책임짐을 맺고 있다.⁴⁷⁾ 모심은 살림을 통해서만, 살림은 모심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모심과 살림이 연결되어 있는 순환적 관계는 악순환이 아니라, 긍정의 순환이고 생명의 순환이고, 삶의 힘을 주는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환대의 주체되기는 모심과 살림의 주체되기과 공명하는 존재방식을 의미한다. 주인으로서 모심이며, 손님으로서 모심이 상호모심이 되는 것이 살림의 의미이다. 모심은 주인과 손님의 상호책임짐의 존재방식이다. 그렇기에 상호모심인 한에서 상호모심의 주체들의 연결망을 통해 상호살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생명존재의 개별성으로는 상호살림의 힘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미 상호살림의 힘을 가진 협동주체로서 생명존재들의 연대와 협력, 협동을 통해 생명살림의 힘을 작동시키고, 강렬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뢰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이러한 철학적 의미를 실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5) 데리가 이야기하는 '타자의 존재 자체가 나로 하여금 타자를 환대하는 증여 행위를 증여 행위를 증여해주었다'는 실천적 의미는 주체 상호간의 거래적 관계나, 혹은 언젠가는 되돌아올 효용가치를 기대하는 관계맺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증여의 본래적인 의미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줌'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줌으로서 증여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증여의 역사적 경험과 이해, 그리고 전 생을 통해 경험한 삶의 체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과정을 통해 증여 행위를 증여 받았다는 의미인 것이다.

46) 임마누엘 레비나스(2003).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옮김, 민음사 / 임마누엘 레비나스(2010). 『존재와 다르게: 본질의 저편』, 김연숙외옮김, 인간사랑 / 자크 데리다(2016). 『아듀 레비나스』, 문성원옮김, 문학과 지성사

47) 우리가 자기동일성을 자기의 고리 속에 머무는 한, 자기와 다른 타자의 타자성은 아무런 의미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타자성과 자기성을 한 쌍으로 놓게 되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타자로서 자기 자신』이 처음부터 암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기성이 타자성을 매우 내밀한 단계에서 이미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다른 한쪽 없이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폴 리쾨르(2006). 『타자로서 자기 자신』, 김웅권옮김, 동문선: 17쪽

5. 협동주체되기의 사회적 실천 방법

본 고에서 우리는 한살림운동을 주도했던 실천주체되기의 의미를 존엄한 생명주권주체 되기로서 협동주체되기로 이야기했다. 생명·농업·밥상살림을 실천해온 협동주체되기란 ‘타자와 더불어서만 주체의 본래성과 고유성, 특이성(singularity)이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는, 즉 타자와 더불어서만 자기 일 수 있는 자기되기’로서 주체되기인 것이다.

스테파노 자마니와 베라 자마니가 함께 쓴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은 왜 우리가 협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이유를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존재이유는 ‘시장경제 안에서 주권자인 시민이 소비자로서 머물지 않고 자본의 논리에 예속되거나 대상화되지 않는 주권적 삶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삶의 방식이며, 타자와 더불어 본래적이고 고유한 자기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선택을 공동의 몫인 자기 몫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함께 지향하는 연대체’라는 것이다.⁴⁸⁾

여기에서 우리는 협동주체되기의 실천적 의미를 ‘향유(享有)’와 ‘저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협동주체의 향유란 타자와 더불어서만 본래적이고 고유하고 특이성의 삶을 누리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주체의 존재방식이다. 협동주체의 향유란 곧 공유와 공존적 향유라고 할 수 있다. 향유는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즐김(enjoyment)’이다. 생명의 힘을 공유하며 생태적 공존을 본질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관계맺는 것이며, 공유는 본질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의 소유함이며, 공동의 참여함이다. 즉 생명의 힘과 생태적 공존의 본질적인 의미에 참여함으로써 본래적이고 고유하고 특이성의 자기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협동주체되기의 ‘저항’이란 생명존재의 유기적 연결과 생태적 공존을 침식하고 억압하는 모든 힘들에 대한 저항이다. 향유도 협동을 통해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저항’은 특별히 협동을 통해 ‘저항’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주체되기의 중요한 존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을 통해 주체의 향유와 저항을 추구하는 협동주체는 모든 존엄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향유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혹은 하고자 하는 모든 힘들에 저항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동주체되기의 중요한 존재방식이다. 한살림운동의 실천주체로서 협동주체되기를 수행하고 있는 한살림운동의 다양한 주체들은 일상에서 향유하고, 일상에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엄한 생명주권주체인 것이다.

향유와 저항, 복수적 힘으로서 주권에 대한 의미를 종합적으로 연결하면서 우리는 협동주체되기의 실천적 의미를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체되기의 4가지 존재방식은 우선적으로 한살림운동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원주체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표 2〉). 본 고에서는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로서 협동주체되기의 과정속에서 한살림운동의 실천주체를 일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소비자 조합원’ 혹은 ‘소비주체’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물음을 갖고 있다. 마치 바다

48) 스테파노 자마니·베라 자마니(2013),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송성호옮김, 북돋움: 26쪽

수면위로 보이는 빙산의 일각처럼, 한살림운동 실천주체의 본래적인 모습을 온전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진다. 우리가 황금률로 여기고 있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종교의 규율도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소비주체’의 존재방식과 행위방식에 간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주체되기의 4가지 존재방식과 행위방식

	Private (사적인 영역)	Public (공적인 영역)
Personal (개인적인 관계)	1사분면 가족들의 건강,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의 먹거리를 소비함.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지만, 생협에서 싸게 파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 이용함. 여러 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물품들을 이용함. 소비주체로서 도구적 주체되기 (private-personal subject)	2사분면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의 먹거리를 소비함.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협력적 공유라는 시대적 가치에 공감하기에 생협 조합원으로 참여함. 매장이나 공급을 통해서 물품을 이용하지만, 마을모임이나 생협의 조합원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음. 소비주체로서 거래적 협동주체되기 (personal-public subject)
Common (공적인 관계)	3사분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생명을 먹거리를 소비함. 아파트나 동네에서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구매하고,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함. 매장과 공급을 통해서 물품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마을모임이나 생협의 조합원 활동에도 참여함. 소비주체로서 전략적 주체되기 (private-common subject)	4사분면 가족들의 건강, 개인의 건강을 넘어 생태계 전체와의 관계를 의식하며 물품과 관계함. 생협 조합원으로서 활동하는 관계망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전체사회의 변화, 즉 생태적 공존에 대한 분명한 지향을 갖고 숙고된 실천적 선택 ⁴⁹⁾ 으로 참여함.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로서 협동주체되기 (common-public subject)

이러한 모습은 〈표 2〉의 2사분면이나 3사분면에 위치하는 존재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4사분면의 협동주체되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웃과의 관계맺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보면, 자기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 자신이 만물의 근거이며 근원이고, 시원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생태적 공존의 관점도 결여되어 있으며, 협동주체되기로서 자기 인식이 결핍되어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로서 협동주체되기를 실천해온 한살림운동이 지향하는 생태적 공존의 삶은 종교적 영성과는 다른 의미에서 깊은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협동주체되기(common-public being)’로서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는 생태적 공존의 영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모두 자기 영성 혹은 종교적 영성과 연결할 수 있지만, 4사분면이 기반하고 있는 것은 생태적 공존의 영성

49) 어떤 것에 대한 앎이나 지혜가 실천적이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프로네시스, phronesis)’와 함께 ‘숙고된 실천적 선택(프로아이레시스, proairesis)’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프로아이레시스란 ‘어떤 숙고된 선택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인 바 자기 자신의 것인 선택’이다. 프로아이레시스인 한에서 그러한 선택이 실천적 의지와 힘을 가질 수 있다.

으로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협동주체되기’를 표현하는 영어개념을 ‘common-public’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실천적 의미를 캐묻고자 한다. 공공성.공공가치에 대한 기존의 탐구는 공(公.public)을 공(共.common) 앞에 위치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에서 공(公.public)은 공(共.common)에 비해 외연과 내포가 더 크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은 공(公.public)으로, 시민의 책임 혹은 마을의 책임은 공(共.common)으로 구분해서, 정부의 공적(公)역할이, 시민이나 공동체의 공적(共)역할보다 더 크고, 포괄적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폴리테이아(politeia.폴리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이든, 로마의 ‘레스 퍼블리카(res publica.로마 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정치체제)’이든 public(공.公)의 의미는 엄밀하게는 common(공.共)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속적으로 폴리스는 공동체(koinonia)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물음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그리고 왜 폴리스 전체 시민을 일컫는 ‘common’을, 로마 시민 전체를 일컫는 ‘public’을 마치 다른 것처럼 분리해서 사유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public(공.公)을 common(공.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케로의 정치철학과 정부철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common으로서 public을 사유해야 할 것이다. 아테네의 common이든, 로마의 public이든 모두 동일한 개념(koinonia)의 번역어이다. 즉 koinonia를 아테네에서는 common으로 로마에서는 public으로 번역하면서 마치 서로가 다른 것처럼 착각과 오류에 빠지게 만든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왜곡된 구분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부의 책임으로서 public과 시민 혹은 마을의 책임으로서 common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왜곡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관료가 public 조직으로서 정부가 시민들 개개인의 모든 안전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서 공공사고로 생명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common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곧 public이라는 점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common)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public 조직으로서 정부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이기 때문이다. 혹은, 정부가 복지예산의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의 삶은 시민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감당하라는 측면에서 ‘community care’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책임지도록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public 조직의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community care가 곧 public care이며, public care가 곧 community care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common은 곧 public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는 공공성.공공가치를 ‘common-public being’, ‘common-public value’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마을정부’, ‘시민주권’,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은 ‘common’과 ‘public’은 다르지 않으며, public은 곧 common임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대정신의 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로서 협동주체되기는 두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영혼의 주체들간의 상호적 열림에 의한 관계맺음이 협동주체되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협동주체는 타자와 더불어서만 자기 일 수 있음을 머리로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주체가 아니다. 협동주체되기는 타자와 더불어서만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음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인 바 전면적으로 자기화되도록 자기실천을 하는 주체되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주체되기는 미시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정치.경제.문화적 관계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미시적인 예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에 대한 책임성 속에서 서로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책임생산을 하고, 또한 책임소비를 하는 관계맺음은 협동주체되기의 한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거시적인 예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남과 북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맺음을 통해 협동주체되기의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북미관계는 여전히 서로의 위험에 대한 불안과 불신 속에서 협동주체되기의 관계속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살림운동을 한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를 살피서 생명의 제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다. 생명의 본래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다⁵⁰⁾. 이러한 맥락에서 한살림운동의 미래는 지금 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을 성취하거나 실현하자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아직 오직 않은 한살림운동의 미래(未來)란 새로운 것의 도래함이 아니라, 본래(本來)적인 생명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아직 오직 않은 것으로서 도래할 것은 바로 생명의 본래성이다. 따라서 한살림운동의 미래란 도래할 생명의 본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한살림운동이 이야기하는 생명살림은 아직 온전하게 충족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생명살림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생명살림을 살고 있음에도 아직 온전한 생명살림이 아닌 중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로서 협동주체되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험되고 확인되는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지속적인 흐름과 생성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며, 생명이 존재하는 한 지속⁵¹⁾되는 과정이다. 협동주체되기는 생명의 참 모습처럼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데 있다⁵²⁾. 존엄한 생명주권주체되기로서 협동주체되기는 한살림의 생명운동이 30년간 독심을 갖고 지속해온 삶의 방식을 우리 사회에 권유하는 말건넬이다. 협동주체되기는 복수적 주체로서 이웃과 더불어서만 본래성과 특이성의 자기 일 수 있는

50) 장일순.(2016). [화합의 논리, 협동하는 삶]. 『나락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123쪽.

2. 51) 베르크손(2005). 『창조적 진화』, 황수영옮김, 아카넷. '지속은 차이의 생성이다. 생명의 역동하는 지속은 스스로 확장되어 자신을 초월하는 결과들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것이다. 지속으로서 생의 약동은 진화의 여러 노선들로 나뉘어 그 위에서 보존되면서 적어도 규칙적으로 유전되고 서로 첨가되어 신종을 창조하는 변이들의 심층적 원인이 되고 있다. 지속으로서 시간과 삶은 연속된 것의 집합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의 흐름이다. 삶은 단지 정신의 자기 자신에 대한 회귀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그것이 흘러나온 생명적 원리와와의 일치이자 창조적인 노력과의 접촉이다.'

52) 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2016). 『한살림 30년 비전 제안 보고서』, 9~10쪽.

주체들의 자기실천이고 연대와 협동의 실천이다⁵³⁾.

〈참고문헌〉

-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2008). [피타고라스], 『그리스철학자열전』, 전양범옮김, 동서문화사
- 막스 호르크하이머(2006). 『도구적 이성비판』, 박구용옮김, 문예출판사
- 모리스 블랑쇼.(2011). 『도래할 책』, 심세광옮김, 그린비
- 모심과살림연구소(2017). [한살림 조합원 리더십 연구보고서], 양세진의
- 미셸 푸코(1992). 『지식의 고고학』, 이정우옮김, 민음사.
- 미셸 푸코(2012). 『말과 사물』, 이규현옮김, 민음사
- 미셸 푸코.(2017). 「파레시아」, 『담론과 진실』, 심세광옮김. 동녘
- 미셸 푸코.(2017). 「자기수양」, 『비판이란 무엇인가/자기수양』, 심세광옮김. 동녘
- 박재일.(2013).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한살림의 협동을 말하다 1』, 모심과살림연구소
- 베르크손(2005). 『창조적 진화』, 황수영옮김, 아카넷.
- 스페파노 자마니·베라 자마니(2013),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 송성호옮김, 북돋움
- 아리스토텔레스(2007).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외옮김, 길
- 에드가 파넬(2012). 『협동조합-그 아름다운 구상』, 염찬희옮김, 그물코
- 임마누엘 레비나스.(2003) 『모리스 블랑쇼에 대하여』, 박규현옮김. 동문선
- 임마누엘 레비나스(2003).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옮김, 민음사
- 임마누엘 레비나스(2010). 『존재와 다르게: 본질의 저편』, 김연숙외옮김, 인간사랑
- 자크 데리다(2016). 『아듀 레비나스』, 문성원옮김, 문학과 지성사
- 자클린 보르드(2000). 『폴리테이아: 고대 그리스 시민권론과 정치체제론』, 나정원옮김. 아르케
- 장일순.(2016). [화합의 논리, 협동하는 삶], 『나라 한 알 속의 우주』, 녹색평론사
- 제레미 리프킨(2009). 『소유의 종말: 접속의 시대』, 이희재옮김, 민음사
- 제레미 리프킨(2014). 『한계비용 제로 사회: 협력적 공유경제의 부상』, 안진환옮김, 민음사
- 폴 리피르(2006). 『타자로서 자기 자신』, 김웅권옮김, 동문선
- 플라톤.(2009). 『법률』, 박종현옮김, 서광사
- 플라톤.(2003). 『국가.정제』, 박종현옮김, 서광사
- 한살림 30년 비전위원회.(2016). 『한살림 30년 비전 제안 보고서』.
- 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2001).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옮김, 문학과지성사

53) 한살림운동의 정체성이 수동적 능동성으로서 '등대'의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시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과 공명하기 위한 실천적 지향속에서 한살림운동은 정치적 변혁, 정당정치의 개조, 시민사회·노동·민중 운동과 한살림운동의 방식으로 생명과 생태적 관점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협동주체되기의 힘을 사회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자기 실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